



일행구복 복지사업으로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달하겠습니다.

한국나노의료기



이금호 | 대표

- "나노를 통해야 첨단기술을 이룬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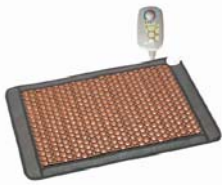
21세기 신기술은 나노기술(Nano Technology, NT)을 통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로마를 통하지 않으면 어디로도 갈 수 없었던 것처럼 작게 생각하지 않으면 첨단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전에 재료공학자(燒 鏤^m隙米) 불리던 연구자들이 미지 세계 개척자로서 작은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나노의 방주'에 서둘러 들어서고 있다. 나노의 방주에는 화학뿐만 아니라 물리(物理)·화학(化學)·공학(工學) 등이 자유롭게 넘나든다. 이들은 혜성처럼 등장한 나노라는 화두를 중심에 놓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기술의 향방을 결정하고 있다. 나노기술이 열려라 참깨식의 마술적 주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전능의 신 노릇을 하는 나노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다른 기술에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기도 한다. 종교인들이 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듯 일상적 기술이 나노를 통하면 황금알을 낳는 신기술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나노의료기는 현실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기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지구촌 인류의 무병장수를 기업의 슬로건으로 시작한 한국나노의료기가 평생건강, 책임구현을 위하여 매진한지도 9년이 지났다. 한국나노의료기의 전제품은 차세대 충전에너지 기술로 열을 가하지 않고 사용하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제품력으로 충전에너지를(티타늄) 응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나노의료기는 2006년 8월 새로운 비상과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으로 차별화 된 기업경영인 윤리경영 선포와 5대 실천과제 선포식을 통하여 거듭 태어나고자 한다.

모든 구성원이 인정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공명정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직의 발전과 인화단결의 초석을 만들고자 함이 윤리경영 선포의



▲ 삼초뜸질기(HN-150)

할 때 기업의 발전과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아울러 투명한 경영(정도, 원칙, 경쟁력 강화, 책임)의 실천이 한국나노의료기의 밝은 미래를 위한 가치창조(일행구복의 실천)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5대 실천과제란, 1.원칙경영, 2.실천경영, 3.멀티경영, 4.책임경영, 5.감동경영으로 그동안의 강한기업(Strong Company)이미지에서 부드럽고 좋은기업(Good Company) 이미지로 한 차원 승화시켜, 평생 고객의 평생건강을 구현하여 인류의 행복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현재 건강장수촌 세계기지화를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건강, 문화, 관광, 체험학습, 휴양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장수촌 세계기지화 비전 2006 마스터플랜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사람의

목적이라고 이 금호 대표는 설명하였다. 모든 구성원이 윤리 경영의 참뜻을 진정으로 실천

만남이 있는 동양 최대의 갈대밭이 어우러지고 을속도의 쪽빛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대자연의 경관에 영빈관을 건립하여 평생고객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첨단 신 공장을 건립하여 연구, 생산, 물류, 관리의 모든 운영을 통합하는 One-Stop System으로 전환하여 보다 질 높은 최고의 제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였다.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고객만족 실천이 한국나노의료기의 경영실천의 중심점에 있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향후 경영목표를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우리 회사의 목표는 한국이 아닙니다. 지금

까지는 세계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한국을 넘어 지구촌의 무병장수를 위한 세계적인 의료기 전문기업이 되겠습니다."라고 자신에 찬 어조로 대답하였다. 글로벌화 시대에 사는 현재 세계화는 필요가 아닌 필수가 되어 버렸다. 아직도 우리



▲ 바로돈(HN-8100)

주위에는 현실에 안주하는 소위 "우물안 개구리식 경영"을 하는 기업들을 종종 보게 된다. 현실 보다는 미래의 발전을 꿈꾸는 한국나노의료기는 앞으로도 무병장수의 꿈을 이를 신기술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 생각한다.